



[로스쿨 소식]

## 로클릭 합격자, 여대·지방대 '돌풍'

전국 법원의 재판연구원(로클릭·law clerk) 선발 전형에서 이화여대와 부산대 로스쿨의 약진이 두드러졌다. 반면 고려대 로스쿨 출신 합격자는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조계와 법학계에 따르면 올해 선발된 로스쿨 출신 로클릭 70명 가운데 이화여대와 서울대 로스쿨에서 각각 9명의 합격자가 나왔다 <표>. 이어 부산대가 8명, 연세대가 5명, 성균관대와 한국외국어대가 4명, 경북대·전남대·전북대·충남대·중앙대·한양대 3명, 강원대·영남대·경희대·시립대 2명, 고려대·동아대·인하대·충북대·건국대가 1명씩 배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강대와 아주대, 원광대, 제주대는 한명의 합격자도 배출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로클릭 합격자들은 내년 4월 변호사시험 결과가 나온 이후 정식 임용되며 시험에 불합격하면 로클릭 합격이 취소된다. 또 이번 합격자들 중에서는 검사 임용이나 대형 로펌 채용에 중복지원 한 사람들도 있어 최종 임용자 수는 달라질 수도 있다.

전체적으로 입학 정원에 비해 스카이(SKY, 서울대·고려대·연세대) 로스쿨 출신 합격자가 적은 가운데 특히 고려대의 저조한 성적인 알려지자 로스쿨생 커뮤니티에는 동요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고려대에는 "재학생들 가운데 군필자가 적어 합격률이 낮았다"는 변명성 이야기까지 돈다. 신영호 고려대 로스쿨 원장은 "상위권 학생들이 대부분 대형 로펌행을 선택했다"며 "로펌에 근무하다가 나중이라도 경력법관으로 판사가 될 수 있는 마당에 확실한 신분이 보장되지 않는 로클릭은 상위권 지원자들에게는 매력있는 선택지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법조계에서는 서울지방변호사회가 로클릭 출신 변호사를 자신이 근무했던 재판부의 사건을 수입했다며 조사위원회에 회부해 촉발된 '로클릭 출신 변호사 전관수임제한' 사건도 로클릭 지원을 주저하게 만들었다는 분석도 나온다.

사법연수원 출신 로클릭도 30여명 선발됐으나 상위권 학생들의 지원은 예

년보다 저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법연수원 관계자는 "연수원 최상위권 학생들은 대부분 일찌감치 로펌의 눈도장을 받아놓은 상태"라며 "단순히 성적만을 기준으로 파악한다면 로클릭 지원자들은 최상위권은 아니었다"고 귀띔했다.

대형로펌의 한 변호사는 "로펌 합격자 중에는 수도권 로스쿨 출신의 젊은 남성 변호사가 많다"며 "채용 과정에서 불이익을 입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여성이나 지방대 로스쿨 학생들은 로클릭 지원에 좀 더 열의를 보인 편인 것 같다"고 말했다.

〈표〉 2015년 · 2014년 로스쿨별 로클릭 합격자 수 현황

로스쿨	정원	2015년 합격현황	2014년 합격현황
서울대학교	150명	9명	5명
이화여자대학교	100명	9명	3명
부산대학교	120명	8명	4명
연세대학교	120명	5명	1명
성균관대학교	120명	4명	5명
한국외국어대학교	50명	4명	4명
경북대학교	120명	3명	2명
전남대학교	120명	3명	3명
전북대학교	80명	3명	1명
중앙대학교	50명	3명	2명
충남대학교	100명	3명	4명
한양대학교	100명	3명	4명
강원대학교	40명	2명	1명
경희대학교	60명	2명	3명
서울시립대학교	50명	2명	1명
영남대학교	70명	2명	2명
고려대학교	120명	1명	3명
건국대학교	40명	1명	4명
동아대학교	80명	1명	1명
인하대학교	50명	1명	3명
충북대학교	70명	1명	1명
서강대학교	40명	-	1명
아주대학교	50명	-	-
원광대학교	60명	-	1명
제주대학교	40명	-	-
합계	2,000명	70명	59명

<법률신문 인용 >